



민간어린이도서관 현황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서비스

## 민간어린이도서관 현황

전영순\*

한 방송사에서 펼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독립된 어린이도서관이 단 2개뿐인 우리나라에서 기적의 도서관프로젝트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반가운 일로, 어린이도서관 설립운동으로 이어져 어린이들이 걸어서 갈만한 곳마다 도서관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이 일반인들의 눈에는 처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미 20여년 전에 어린이도서관을 세우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립어린이도서관 설립운동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

### 사립어린이도서관 운동의 시작

사립어린이도서관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한다. 어린이도서관은 어린

이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다. 그래도 이런 소망을 갖고 어린이도서관을 세운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사재를 털어 사립어린이도서관을 세운 사람들이다.

본인이 파악한 최초의 사립어린이도서관은 1980년 잠실 시영아파트 채규철 씨 집에 마련한 도서관이다. 당시 어린이책 2,000여권을 집에 갖춰놓고, 어린이들에게 빌려 주었다고 한다.

가장 오래 운영된 문고로는 1984년에 세워져 2000년까지 17년 동안 운영된 강릉 ‘보람의 집’ 문고가 있다. 이후 1996년에 세워져 오늘까지 운영되고 있는 수원의 ‘열린문고’와 부산의 ‘들꽃이야기’가 있고, 1997년에 세워져 역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서울 ‘파랑새어린이도서관’과 ‘신사어린이도서관’이 있다. 이후 전국에 세워지는 어린이도서관 수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 전후로 갑자기 사립어린이도서관에 관심

\* 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파랑새 어린이도서관 관장

이 많아지면서 현재는 전국에 약 100여개의 사립 어린이도서관이 설립되었고, 계속 증가추세이다.

### 사립어린이도서관의 수와 분포

사립어린이도서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과 단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나뉘어지며, 그 중 2/3 정도가 네 개의 어린이도서관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1998년에 구성된 어린이작은도서관 협의회에는 현재 20곳의 어린이도서관이 가입되어 있고, 감리교어린이도서관협의회에는 감리교 소속 교회에 세워진 어린이도서관 21곳이 가입되어 있다. 2002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공부방에 세워진 도서관이 10곳, 에스콰이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포어린이도서관 국내관이 14곳이 있다. 아무 곳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이 25곳으로 모두 90곳에 어린이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감리교어린이도서관의 수는 2002년 8월에 파악한 숫자로 이후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본다. 또한 최근에 세워진 철암어린이도서관이 있고, 알려지지 않은 도서관도 꽤 있으리라 본다.

파악된 어린이도서관의 수를 지역별로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지역	소속 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	공부방	감리교	에스콰이어 재단	소속 없음	계
서울	7	10	8	4	7	36
경기	9	·	9	1	12	31
충청	2	·	1	2	3	8
강원	·	·	1	1	·	2
경상	1	·	2	3	2	8
전라	·	·	·	3	1	4
제주	1	·	·	·	·	1
계	20	10	21	14	25	90

이들 도서관의 규모나 시설, 장서는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문고의 시설기준에 준하는 도서관이 대부분이지만, 전국에 400여 개밖에 없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에서 볼 때 이들 도서관은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라 여겨진다.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책을 만나고, 어린이책 관련 독서문화행사에 참여하면서 자발적인 독서가로서 자라나고 있다.

### 사립어린이도서관의 규모와 이용현황

사립어린이도서관의 규모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상가에 있는 도서관부터 주택가에 위치한 도서관까지 여러 곳에 있는데, 평균 규모는 대략 30여평 전후이다. 그 공간을 순전히 열람실로 사용하지 못하고,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공간, 사무공간이 함께 있기에 넉넉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가능하면 많은 어린이들이 책과 친구가 되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통 도서관 당 100명에서 150여명 정도의 어린이(상시 인원)가 이용을 하는데,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약 30명 전후이다. 비록 도서관의 면적은 작지만, 자료의 양과 질은 도서관 이용인원에 비례해 본다면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보여진다. 대부분 도서관이 3,000권에서 5,000권의 선별된 자료를 갖고 있다. 어린이작은도서관협회 소속 사립어린이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도서의 질이며, 좋은 책을 어린이들에게 권하는 것을 어린이도서관의 사명으로까지 삼고 있을 정도이다. 우리 나라 어린이도서관은 수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그 열악함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다른 기회에 따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공립 도서관이 보통 1주일에 6일 이상 도서관을 개관하고 있는데, 사립어린이도서관은 일주일에 5일 정도 도서관을 개관한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도서관을 개관하기를 바라는 몇몇 회원들이 있기는 했지만 막상 도서관을 열면 그 이용도가 높지 않고, 대부분 사립어린이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관장이 혼자 운영을 하기에 주 5일 이상 개관을 한다는 것이 무척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록 개관일수가 국·공립도서관에 비해서 적지만 어린이도서관이 하고 있는 활동은 국·공립도서관에 못지 않다.

도서열람과 대출을 기본으로 어린이책 상담, 독서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상시 혹은 방학특강으로 열고 있는 독서교실이나 독서토론회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체계적으로 읽히며, 책에 대한 흥미도를 높여 독서습관을 기르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1년에 한 두 차례 여는 문화행사나 월례행사 때 공연하는 그림책 멀티 슬라이드 공연은 영상매체에 길들여진 어린이들을 책의 세계에 발 들여놓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도서관별로 동화작가와 만남, 원화 전시회, 좋은 책 전시회, 독서캠프 등 다양한 행사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그 밖에 어린이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펼치기도 하는데, 연극 동아리 운영, 문화체험, 환경학교 등 어린이들의 삶을 바르게 가꾸어 주기 위한 활동들도 펼치고 있다.

어린이독서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학부모들에게 어린이독서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도록 이끌며, 어린이 독서나 교육 환경을 전반적으로 바르게 조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는 것이다. 각 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운동에 학부모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학부모를 위한 강연회, 정기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도서관 운영이 외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가 갈수록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도서관이 늘고 있다. 그 까닭을 밝혀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운영의 어려움

사립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해가 가면서, 이 일이 생각보다 힘들구나, 뜻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며 이 일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운영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사립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어려움은 바로 불안정한 장소 문제이다. 대개는 상가를 임대하여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 임대 기간이 끝나거나 책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장소를 옮겨야 하는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도서관이 잘 되어서 더 넓은 곳으로 옮긴다는 오해가 따르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부담은 도서관 운영자의 몫이다.

다음으로 도서관 운영비 조달 문제일 것이다. 초기에 이런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어린이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어떻게든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읽혀보자는 마음에서 시작한 평범한 사람이 많다. 여유있는 돈을 도서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벌어가면서 도서관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할 수 없이 유료 독서교실이나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 도서관 운영을 감당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제 건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니 임대료, 인건비, 도서구입비, 관리비 등 점점 올라가는 운영비를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업무가 과중하여 힘겨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순전히 개인이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도서관 나름대로 국가나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해 보지만 지원을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간혹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도서구입비 정도이다. 도서관 운영이 책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일반인의 후원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후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반면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인지, 어린이문화 운동에 후원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드물다.

이 밖에도 자료관리나 독서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 우리의 희망

기적의 도서관이 말처럼 전국에 수십, 수백개 세워지고, 아니면 국가에서 어린이들이 걸어서 갈만한 곳에 어린이도서관을 세울 때까지라도 사립어린이도서관은 존재의 이유가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너희가 좋아서 한 운동이나 너희가 알아서 운영하라'고만 하는 것은 도서관 운동가들을 지치고 분노케 한다.

비워있거나 별다른 목적 없이 사용되고 있는 공공장소 안에 사립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사립어린이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줄이는데 매우 바람직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문화센터로 모습을 바꾼 동사무소의 일부 공간과 문을 닫은 파출소 등에 사립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준다면 그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은 물론 운영비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어린이도서관운동가들의 활동을 인정하여, 이제는 도서구입비는 물론 적어도 한 두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좋은 시설과 넉넉한 규모와 질 좋은 책을 갖춘 어린이도서관을 곳곳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꿈이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사립어린이도서관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 알림

도서관문화를 통해 행사 소식을 상세히 알리고 싶은 도서관·단체·개인은 도서관 문화 편집실로 행사보고서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원고 매수는 5~10매 이내로 해주십시오.

\*전화 : 02-535-4868

\*전송 : 02-535-5616

\*E-mail : w3master@korla.or.kr

\*주소 : (137-702) 한국도서관협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담당 : 심효정